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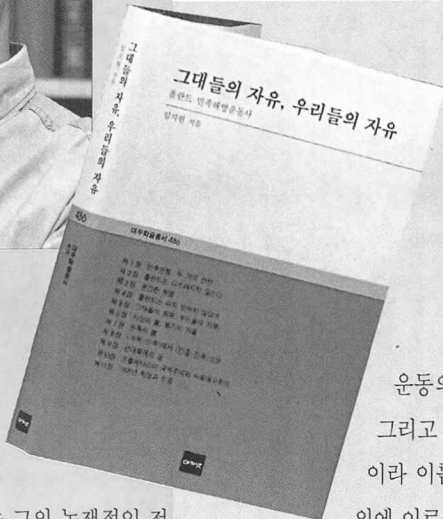
임지현 교수

아카넷/A5신/336면/18,000원

## “민족주의는 또다른 권력 이데올로기다”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 펴낸 임지현 교수

폴란드 민족운동사를 지배한 것은 애국적 낭만주의와 이상주의였다. '민중-민족' 국가를 지향했던 폴란드 민족운동은 후에 억압적 '국가-민족' 국가로 전환됐다. 임지현 교수는 폴란드의 민족운동사 고찰을 통해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다.



임지현 교수(41, 한양대 사학과)가 펴낸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아카넷)는 그의 논쟁적인 저작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에 이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천착한 책이다. 1772년 1차 분할에서 1918년 독립에 이르기까지 폴란드 민족해방운동사를 저자 특유의 유려하고 화려한 문학적 수사를 통해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폴란드 민족운동에 대한 평면적인 서술을 넘어 민족 구성의 원초성과 근대성, 민족혁명과 사회혁명, 민족과 계급, 국가와 민족과 같은 대립항들과 그것들이 빚어내는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민족주의를 냉정한 시각에서 분석해

“폴란드의 민족운동을 거울 삼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민족주의'란 과연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민족담론으로 설명하려고, 그리고 신화화하려고 하죠. 폴란드라는 프리즘을 통해 민족주의를 객관화해보려 했습니다.”

임교수가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정하다 못해 야멸차기까지 하다. 그는 우선 “미시적 실증 분석이라면 폴란드의 실증적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둬도 충분하다”고 전제한 다음 “폴란드 민족운동사의 주류는 애국적 낭만주의와 이상주의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해 폴란드 민족

운동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합리주의가 '무모함'이라 이름 붙인 그것은 낭만주의에 이르면 '용기'라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면서 “폴란드 민족운동사는 결국 현실주의에 대한 이상주의의 관념적 승리의 기록이자, 역사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한 이상주의의 현실적 패배의 기록이다”고 못박는다. 이와 같은, 어쩌면 아우로도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는 동정 어린 시선일 수도 있다. 비록 지금은 그 위력이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민족주의'라는 '마력'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움아매는 '주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민족주의를 좀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또 다른 권력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점을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민중-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해방운동으로 시작한 폴란드 민족운동이 해방 후 지금까지 국가가 민중 지향 사회를 압도한 억압적 '국가-민족'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만 사회주의적 수사로 장식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 낭만적 대안으로서의 민족주의

“피지배국이 점령국에 저항할 때 민족주의는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민족주의는 억압의 기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후 폴란드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억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정통적인 국가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상적 대안은 민족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폴란드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역시 정통성이 결여된 국가보다는 피안에 존재하는 낭만적 대안으로서 민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국가가 없다는 것이 집단적 삶의 정상적 조건이었던 폴란드의 비정상적 역사상황 속에서 민족은 사실상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 실체이자 신화였다”는 말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오랜 독재를 거치면서 우리의 무의식에 깊게 침잠돼 있는 민족주의라는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의 민족주의 역시 해방 이후에는 또 다른 권력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의 통일 논의도 '한 민족이니까 통일돼야 한다'는 낭만적인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사실이죠.”

다음 저작은 그를 폴란드로 이끌었던 로자 룩셈부르크 전기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를 연구한 책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심연을 한층 더 깊이 '탐사'해 볼 작정이다. - 최갑수 기자